

연길시 의무교육단계 학교 학생모집 추첨사업 완료



2일, 2024년 연길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모집 추첨사업이 연길시교원연수학교에서 펼쳐졌다. 추첨 규칙에 부합되는 연길시 일부 중소학교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되었다.

연길시교육국은 연길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생모집과 입학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연길시 2024년 의무교육학교 학생모집 입학사업방안>에 따라 1단계-6단계 신청자수가 학생모집 계획수를 초과하지 않은 학교는 그대로 학생을 모집하고 1단계 신청자수가 학생모집 계획수를 초과한 일부 학교들에서는 컴퓨터로 번호를 추첨해 무작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추첨되지 못한 신입생은 조정 입학하도록 배지했다.

올해 연길시 중소학교 입학 신청 상황에 따르면 연길시연초학교, 연길시하남초학교와 연길시제4중학교의 신청자수가 학생모집 계획수를 초과했는데 방안의 '두 가지 일치' 우선 입학 원칙에 따라 이 세 학교중 '두 가지 일치'가 아닌 (즉 연길시 호적과 부동산이 있고 호적과 부동산의 주소가 일치하지만 '부모 생방과의 호적 일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 신입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 학생모집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추첨사업의 공정, 투명, 공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길시교육국은 규률검사실, 인대 대표, 정협 위원, 매체 대표와 일부 학부모 대표를 현장에 초청해 전 과정 감독하도록 했으며 추첨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학



부모들이 '연길시 2024년 의무교육학교 학생모집 입학봉사 플랫폼'에 접속해 '입학조회'를 클릭하면 입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만약 추첨되었지만 배움터를 포기한 학생이 있으면 그 배움터는 다른 학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추첨되지 못한 신입생은 자동으로 조정 입학 절차에 들어가는데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여러차례에 나누어 조정시간에 따라 조정 입학한다. 학부모들은 '연길시 2024년 의무교육학교 학생모집 입학봉사 플랫폼'에 접속해 차례로 '입학조회', '조정학교'를 클릭한 후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 조정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뉴에서 지원 가능 학교와 잔여 배움터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학부모가 규정된 시간내에 조정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길시교육국에서 통일적으로 학교를 배지한다.

/연변일보

수술로 근시를 치료할 수 있을까?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과학적으로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근시 예방통제 열점문제에 응답했다. 북경동인병원 주임의사 위문빈은 근시는 완치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을 바꾸고 야외활동을 늘이며 근거리 눈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로 근시를 치료할 수 있을까? 위문빈은 근시 수술 치료에는 주로 각막굴절 수술과 안구굴절 수술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주의해야 할 점은 수술교정은 반드시 18세 이후에 진행해야 하고 근시 도수가 안정되어야 가능하며 엄격한

수술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안구 발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수술로 근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상 수술은 '안경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수술 수단으로 안경의 굴절도를 안구에 가하여 안구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도수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은 근시 자체에 의한 안구의 구조적 변화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시 수술 이후에도 안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산동(散瞳)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민넷

[눈높이 자녀교육]

아이를 알아가고 시대 변화 따라가야

과거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알지 못했다. 부모는 신비스러운 존재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되려 부모들이 아이를 잘 모른다. 아이가 신비스러운 존재가 됐다.

부모가 아이에게서 배우는 전제는 아이를 알아가는 것이고 아이의 현대적인 행위에 동질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아이에게서 배우는 태도를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릇된 교육방식을 취함으로써 아이의 적극성을 타격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암호를 이용해 부모와 '두뇌싸움'을 한다고 한다. 심양시의 한 부친은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친구들과 전화로 통화할 때 '23', 'VVG', '상태신호 3' 등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수소문한 결과 '23'은 '웃는다'는 뜻이고 'VVG'는 영어 'very very good'의 줄임말이며 '상태신호 3'은 신호가 만격, 컨디션이 좋다는 뜻을 알게 됐다.

또 일부 부모들은 일찌기 아이들의 단체 채팅방에 가입하려 했지만 곁에서 가로막혀 일련의 문제나 언어를 대답해야 하다 보니 아예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발견한 건 한편으로 부모들은 아이의 내심세계를 료해하고 싶지만 량호한 교류 경로가 없어 애를 먹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아이는 겉껍질 장애를 설치하면 서까지 자신의 사생활과 성장 공간을 보호함으로써 부모의 침투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한 방면으로는 부모가 현재 아이의 심리와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이가 이미 성장했음을 의식

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육방식을 제때에 개변하지 않은 데다 아이가 경계선을 그어놓고 멀리 떨어지려는 행위가 그들을 당황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방면으로는 아이들도 부모의 로심초사를 리해하지 못한 채 반항행위로 자신의 성인의식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일부 부모들은 아이와 시대 발전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사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아이와 격리된 감을 느낀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부모와 멀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들이 표출하는 반항도 일종의 성장이라는 것을 리해해야 한다. 아이의 성장 특징을 리해해야만 아이에게 독립적인 공간과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도 부모의 관심과 애호가 필요하다. 비록 그들이 늘 어

른처럼 강한 척하지만 사실 심리적으로는 망연해하고 취약하다. 부모는 아이의 표면적인 즐거움 때문에 그들 청춘의 번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부모는 시대의 발걸음을 바짝 따라 아이에게서 새로운 사물을 많이 접하고 배워야 하며 생활, 패션, 과학기술 등 방면에서 가능한 한 아이와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래야만 서로의 리해를 깊이할 수 있고 쌍방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아이는 내용이 매우 풍부한 환경의 책이다. 때 부모마다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연구해야만 아이의 '10만가지 무엇 때문에'를 리해할 수 있고 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순운호, 중국청소년연구중심 연구원, 가정교육 수석전문가, 중국가정교육학회 부회장) / 신화사

아이의 '학습장애' 교정? 부모의 불안정서 치료가 급선무

여름방학에 북경아동병원 심리치료과는 진료 고봉기를 맞이했다. 최영화 과실 주임은 하루에 40여명의 아이를 진료하는데 그중 절반은 여름방학 시간을 이용해 '학습장애'를 조절하려는 사람들과 소개했다.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동증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일곱살 난 연연이는 엄마와 함께 최영화 주임의 진료실에 들어섰다. 부모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는 혼자서 중얼거리를 좋아하고 수업시간이면 늘 자리를 떠나 '산보'한다고 말했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본인도 공부부를 하지 않는 데다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선생님도 연연이의 행동을 교정해주려고 시도해보았지만 그는 항상 못 본 체한다는 것이다. 최영화 주임은 언어, 사교, 정서 등 일련의 측면을 진행한 끝에 연연이의 '학습장애'는 자폐스펙트럼 장애(孤独谱系障碍)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영화 주임은 만약 아이가 입학한 후 '제멋대로'로 인해 학습장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와 정



상적인 사회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폐스펙트럼장애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목전까지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간섭은 교육과 훈련을 위주로 하여 조기 식별이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12살 난 희희는 여름방학을 하기전부터 공부에 싫증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방학기간에는 특히 인터넷에 푹 빠졌다. 검사 결과 최영화 주임은 단순한 '공부혐오'는 아

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그 이전에 그는 몇번이나 노력했지만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지 못했고 부모와 선생님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여 뚜렷한 우울정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타락'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혐오'는 절대 아이의 본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초조한 아이들 뒤에는 더 초조한 부모가 있습니다." 최영화 주임은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혐오' 증상이 뚜

렷한 거의 모든 아이들은 심리 혹은 정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따라 희희에게 항우울성 약물치료를 하는 동시에 최영화 주임은 부모에게도 '처방'을 내렸다. 그것은 바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 앞에서 부모는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여 아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책이나 꾸중은 결코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오히려 부모자식간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고 함께 옆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름방학도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최영화 주임은 학생들에게 차츰 규칙적인 일상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단련하는 습관을 양성하면서 개학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학부모도 아이에게 제시한 방학숙제를 완수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준비를 충분히 하고 마음이 든든하다면 개학이 되어도 초조해하지 않을 겁니다."

/신화사

여름방학 절반 지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계획

여름방학이 중반을 지나면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면서도 학업에 대한 요구도 늦추지 않으려 한다.

가정교육 중시해 아이가 신체와 수면에 관심을 돌리도록 인도해야

가정교육에서 운동은 항상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바 매일 최소 2시간의 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1시간과 가정에서 1시간이 이들의 하루 일과중 최우선 임무로 된다. 운동을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가정교육의 주요 관심사이다.

둘째는 수면과 관련된다.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아이와 함께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이 2가지는 가정생활의 초석으로서 아이에게 건강이 우선이라는 개념을 전달해줄 수 있다.

개성화 생활과 학습 방식 시도하게 해야

미래 90%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구비하게 해야 할까? 방학 동안 3가지 감정과 실천적 탐구를 시도해볼 수 있다.

첫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리상적인 방학을 추구하고 창조력



여름방학 각지에서는 연학관광(研学旅游)이 점차 각광이다.

과 내부 추진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셋째는 관습을 버리고 전례없는 방식을 통해 방학을 보내면서 혁신적 사고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합리적 방법으로 아이의 숙제를 감독해야

아이가 숙제를 하는지 시시각각 주시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자각성을 격려하여 아이가 숙제를 하는지 항상 감독한다. 아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 많다면 참지 못하고 아이를 타이른다. 부모

는 아이에게 오늘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미리 물어보고 시간이 다 되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아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에는 되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의 노력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숙제를 지도할 때 높은 위치에서 평가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립장을 바꾸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의 장점을 보고 아이의 자아가치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이로 하여금 숙제에 전념하는 습관을 양성시켜야 한다. 아이들은 산만하기 쉽고 자제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현상은 정상적이다. 질질 끄는

상황을 피면하기 위해 부모는 숙제의 어려움과 량에 따라 자녀와 함께 목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량호한 친자관계를 유지해야

좋은 친자관계를 중시하고 유지하는 것은 교원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지원이다. 아이가 성장하고 도전과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는 그들을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방학은 친자관계를 회복하고 증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이다.

/인민넷